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

미국

미국 주 정부 간 재정격차: 총 과세 가능 자원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

중국

푸젠성 내 중국-인도네시아,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조성

한국

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

- ESG 채권 도입 동향을 중심으로

개요

- ▶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전환의 필요성과 전환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 ESG 채권의 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전개되고 있음
- ▶ 지방의 금융기관과 주민의 ESG 채권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성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불확실성의 증가와 요구되는 전환능력

- ▶ COVID-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경쟁, 공급망의 재편, 식량문제 등으로 국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
- ▶ 물가상승, 에너지 문제, 인구감소, 재정압박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증유의 곤경에 처해 있음
- ▶ 2020년 경제산업성의 제조기반백서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전환능력(Dynamic capability)이 요구됨을 지적함
- ▶ 2020년 5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DX(Digital Transformation)에 관해 정책 제언함
정책 제언에서는 전인류가 COVID-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여 각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이를 계기로, 세계의 양상은 크게 변화함. 일본은 다양한 영역의 긴급한 대응으로서 디지털화가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변화한 시민의 요구에 응하는 틀로서, 디지털 기술은 더욱 필요함
- ▶ 일본은 기존의 사회구조 및 변화를 기피하는 관습으로 인해 세계적 DX의 경향을 학습, 모방하기는 쉽지 않으며, 진전 또한 느린 형국임. 세계적 동향을 습득하면서 일본 특유의 「DX」를 제언함

- ▶ 2022년5월, 일본경제인단체인 경단련은 GX(Green Transformation)을 향한 정책 제언을 실시함
 - GX는 국내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일본의 성장 전략의 큰 틀로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
 - GX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동변화를 요구하여 사회변혁을 수반함

지속가능성 전환과 환경·사회·거버넌스

- ▶ 2020년,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대화의 실질화 검토회에서 SX(Sustainability Transformation)를 제시함
- ▶ SX는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속에서 기업이 경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과 ESG의 양립을 도모함
 - 조직 내외의 경영 자원을 재결합·구성하는 경영자나 조직의 전환능력과 회복력(resilience)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고려한 투자활동이나 경영·사업 활동을 칭함
 - ESG는 투자 활동으로 시작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ESG 경영에도 보급되고 있음
 - SDGs가 목표인 반면 ESG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함

지방자치단체와 ESG금융

- ▶ 총무성은 2023년도 ESG분야에 용도를 제한한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함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관투자자가 주목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투자를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는 단독으로 발행하는 개별채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휴해 발행하는 공동채가 있음
 - 공동채는 발행에 관련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채무임
- ▶ ESG채권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린본드가 주류임
 -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본드는 기후변화 완화와 대규모 재해가 발생시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표1 최초발행연도 및 종류별 지방자치단체의 ESG채권 발행 사례(예정도 포함)

※ 2018년, 2019년에는 ESG 채권 발행 실적 없음

	그린본드	SDGs 채권	소셜본드	지속가능본드	지속가능 링크본드
2017년	동경도				
2020년	나가노현, 카나가와현	코베시			
2021년	카와사키시, 후쿠오카시, 미에현	교토시	동경도	키타큐슈시	
2022년	센다이시				시가현

표2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전국형 시장공모 지방채 발행 계획(억엔)	
	전체 금액	전체금액 중 ESG 채권 금액
동경도	8,400	1,000
카나가와현	3,900	100
나가노현	1,100	100
미에현	330	50
카와사키시	1,050	50
교토시	1,600	11
키타큐슈시	1,100	105
후쿠오카시	1,500	50

- ▶ 환경개선과 사회공헌에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SDGs채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함
 - 2022년에 SDGs채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동경도, 사이타마현, 나가노현, 후쿠오카시, 요코하마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로 증가함
 - 1월: 후쿠오카시(그린본드), 2월: 동경도(소셜본드), 4월: 시가현(지속가능링크본드), 8월: 카와사키시(그린본드), 9월: 사이타마현, 기타큐슈시(지속가능성 본드), 효고현, 센다이시, 시즈오카현(그린본드), 10월: 나가노 현, 미에현, 동경도, 카나가와현, 오사카부(그린본드), 12월: 아이치현, 교토 (그린본드), 나고야시(SDGs채권), 요코하마시(지속가능본드)
 - 지방자치단체의 ESG채권 발행은 재원 조달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재원 조달과 친환경으로 시민을 설득하고픈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홍보하고 싶은 투자자층 전략에 의해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임
- ▶ 후쿠오카시는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적 조달로 이어질 것”이 그린본드 발행의 목적임을 밝힘. 후쿠오카시 담당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며, SDGs를 배려한 채권이 향후 투자 우선도가 높아질수도 있다”고 그린본드의 정당성을 설명함

- ▶ 후쿠오카은행 종합기획부 담당자는 “지역 금융기관이 투자금액과 이율만이 아니라 탄소중립의 지원에도 공헌하고 싶다”고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을 설명함. 그리고 채권발행에 있어 공감대 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신용도가 높은 점도 향후 기대되는 이유임

시사점

- ▶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DX, GX, SX등 다양한 사회변환이 요구되고 있음
- ▶ ESG채권 발행을 통해 SDGs미래도시, 지방자치단체SDGs모델사업등이 주목 받음
- ▶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ESG채권 발행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금융이 참여하고, ESG채권이 다양한 사업대상에 적용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ESG채권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이 사용 목적과 현황을 관찰할 수 있음
- ▶ 불확실성의 증가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ESG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능력 함양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ESG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1) 경단련. (2022).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해서』
- 2) 경단련. (202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의 협력적 창조로서 미래를 개척한다』
- 3) 경제산업성. (2020). 『제조기반백서』
- 4) 경제산업성. (2020).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창출을 위한 대화의 실질화 검토회 중간 보고서』
- 5) 내각부.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tyosa/r02kokusai/h2_02_01.html
- 6) 아사히신문. <https://www.asahi.com/articles/ASQ2D5H53Q23TIPE02J.html>
- 7) 일본경제신문.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1AMW0R21C22A1000000/>
- 8) alterne. <https://www.alterna.co.jp/63694/>
- 9) Schoo for Business <https://schoo.jp/biz/column/1501>
- 10) 高岡 和佳子. (2022). 『지방자치단체의 ESG 채권』

배운 통신원

by1112@hanmail.net

Part-time Lecturer Keio University SFC, Ph.D